

# 취임사

존경하는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회장을 맡은 한국공학대학교 고희진 교수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2000년 창립 이래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영컨설팅분야 학술활동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기획재정부 기부금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학회의 위상을 높였고, 2022년 '경영컨설팅연구'를 격월로 출간하여 연구자들의 학문적 수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전임 고경일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과 임원진, 편집위원회 그리고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와 사무국은 우리 학회가 경영컨설팅 분야의 수월성 높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심도 높은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쾌히 사무국장을 맡아주신 한남대 권일숙 교수님과 사무차장을 맡아주신 동의대 정연주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한국경영컨설팅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학회의 강점인 산학연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체와 연구소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주요 이슈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뿐 아니라 연구소, 공공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학회 세션을 운영하여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및 지방대학 소멸위기 극복, 디지털대 전환에 따른 신산업분야의 인력양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대응 등 국가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학회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과제를 수주하고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회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는 교육과 연구로 지친 회원님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오고 싶은 학회, 힘이 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논문 경진대회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올 한해 저와 사무국은 회원 여러분의 조언을 귀담아들어 한 단계 도약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